

		<h1>보 도 자 료</h1>			
		배포일시	2021. 4. 23.(금) / 총 5매(본문3, 참고2)		
담당 부서	미래드론교통 담당관	담당 자	• 과장 나진항, 사무관 박유준, 장영기 주무관 손달현 • ☎ (044) 201-4197, 4199, 4198, 4302		
협업 기관	항공안전기술원	담당 자	• 본부장 강창봉, 팀장 김송주 • ☎ (032) 727-5740, 5748		
	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	담당 자	• 실장 김운순, 연구원 김준범 • ☎ (031) 389-6530, 6469		
보 도 일 시		2021년 4월 26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25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드론 신호등, K-드론시스템으로 안전성 높인다
26일부터 K-드론시스템 실증지원사업 공모
- 공항, 도심, 장거리·해양배송 분야 공모...총 7억 1,000만원 규모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직무대행 윤성원)는 드론의 활용도 및 안전도를 높여 드론배송 및 드론택시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기술인 K-드론시스템의 실증 지원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.
- K-드론시스템은 드론의 비행계획승인, 위치정보 모니터링, 주변 비행체와의 충돌방지 등을 지원하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이다.
- 드론의 신호등이라 할 수 있는 K-드론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비가시권 비행은 물론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관제할 수 있게 된다.

< K-드론시스템 개요 >

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유인기 관제구역 비관제구역 (Class G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교통관리체계 부재시></p>	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유·무인기 통합 관제구역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관리구역 (Class G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교통관리체계 적용시>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기간/예산) '17.04.~'22.12 (5년 9개월) / 245억원 (정부 198억원, '21년 19억원) • (참여기관) 항공안전기술원, 한국항공우주연구원, 전파통신연구원 등 	

○ 정부는 '17년부터 K-드론시스템 연구개발(R&D) 사업에 착수하여 작년 11월 도심항공교통(K-UAM) 시연 행사를 통해 다수 드론을 동시에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대중에 공개한 바 있다.

□ 올해 신규로 착수되는 K-드론시스템 실증지원사업은 지난해 5월 수립한 「K-드론시스템 실용화촉진방안」의 일환으로,

○ R&D 과제 종료전이라도 현재 기술수준으로 실용화가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.

□ 이번 K-드론시스템 실증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업체에는 R&D 기술 중 위치식별장치 및 통신장비 등을 조기적용 하기 위해 필요한 드론개조 및 테스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.

○ (지원규모) 사업 분야에 따라 3천만원~3억원 내외로 지원하고, 총 지원규모는 7억 천만원이다.

○ (실증범위) 그동안 공항주변 미식별 드론 발생, 드론배송 시범경로 발굴 등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'공항 분야', '도심 분야'와

- 수소 등 신에너지를 활용한 도전적 과제인 '장거리 및 해양 분야 배송' 등 3개 분야에 대해 사업자를 공모한다.

< 분야별 주요사업 예시 >

- ①공항분야 : 공항 주변에서의 드론 비행 인·허가를 위한 식별, 항공교통관제 기관과 드론 이동경로정보 상호 공유방법 개발 및 시범운용 등
- ②도심분야 : 통신·장애물 제한이 없는 드론배송 시범경로 발굴, 제한구역 주변 드론의 실제 비행경로 및 고도 등 실시간 감시 능력 실증 등
- ③장거리·해양분야 : 수소연료 등을 활용한 장거리·장시간 감시능력 검증, 부두↔선박간 유류샘플 및 경량화물, 비가시권 장거리 배송 등

-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**사업자 선정위원회의**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공모계획은 다음과 같다.

< 공모절차 개요 >

- (공모기간) '21년 4월 26일(월)~'21년 5월 13일(목), 17:00까지
- (신청방법) 공모문을 참조하여 5월 11·12일 항공안전기술원 방문접수
- (지원대상) 드론교통관리 플랫폼 개발·실증, 드론 통제·관리시스템 등과
기 개발된 교통관리 플랫폼과의 연계, 수소 등 신에너지를 활용한 도전적인
드론 실증 등에 관심이 있는 자(민간사업자, 연구기관, 공공기관 등)
- (지원규모) 총 7억 천만원, 사업내용에 따라 3천만원~3억원 내외 지원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4월 26일부터 **국토교통부 드론정보포털** (www.droneportal.or.kr) 및 **항공안전기술원 누리집**(www.kiast.or.kr)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□ 국토교통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 나진항 과장은 “K-드론시스템은 드론의 활용범위를 기존 가시권 내에서 비가시권까지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는 수단” 이라고 강조하면서

- “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비행가능지역의 확대, 자동화 드론배송, 수소연료 등을 활용한 장거리 배송 등 다양한 가능성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 박유준 사무관(☎ 044-201-419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K-드론시스템 실증지원 사업 공모 개요

- 사업명 : 2021년 K-드론시스템 실증지원 사업
- 참여대상 : 드론 교통관리에 관심이 있고 아래 중 하나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국가·공공기관, 국내 연구기관, 대학, 민간사업자, 관련 협회 등
 - (1) 드론 교통관리 관련 플랫폼의 자체 개발·실증
 - (2) 드론시스템(GCS 포함), 드론 통제·관리 시스템 등과 기 개발된 교통관리 플랫폼 연계
 - (3) 기 개발된 플랫폼을 사용한 도전적인 드론 실증
- * 단독참여 또는 타 기업, 공공기관, 연구기관, 대학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
- 사업기간 : 계약일 ~ 2021년 11월 30일(예정)
- 공모방식 : 3개 지정분야에 지원
 - (지정공모) 공모안내서에 제시된 (1)공항, (2)도심, (3)장거리·해상 등 특화 분야에 적합한 교통관리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거나 해당 실증을 위한 솔루션(기술 또는 서비스)를 보유한 사업자가 상세 추진계획을 제안하여 수행하는 방식
- 선정방식 : 공개경쟁
- (지원예산)부가가치세 포함 금액
 - 공항분야: 단독 또는 컨소시엄별 3억원 내외 지원
 - 도심분야: 단독 또는 컨소시엄별 2억원 내외 지원
 - 장거리·해상 등 특화분야: 단독 또는 컨소시엄별 3천만원 내외 지원
- * 국가기관·지자체는 예산 지원 불가함
- (공모기간) 4월 26일(월) ~ 5월 13일(목), 17:00까지
- (신청방법) 공모문을 참조하여 5월 11·12일 항공안전기술원 방문접수

참고 2

K-드론시스템 개요

- (개요) 다수의 드론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저고도(150m ↓) 교통 관리체계 개발 및 실증을 통해 무인비행장치 안전 운영 기반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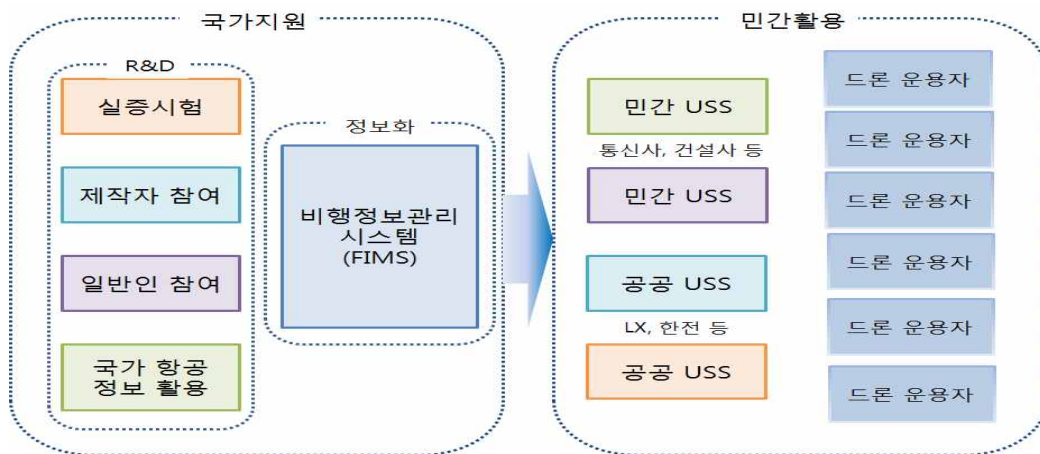
《연구개발 과제개요》

- ▶ (과제명) 무인비행장치 안전운항을 위한 저고도 교통관리체계 개발 및 실증시험
- ▶ (기간/예산) '17.04.~'22.12 (5년 9개월) / 245억원 (정부 198억원, '21년 19억원)
- ▶ (참여기관) 항공안전기술원, 한국항공우주연구원, 전파통신연구원 등



- (체계) 국가는 비행정보관리시스템*를 구축하고 서비스는 민간 사업자 (USS) 및 공공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저고도 드론교통 관리기술

* FIMS(Fligh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) : 드론의 위치, 기체등록정보, 조종자정보, 공역통제 사항 등이 포함된 국가항공정보 클라우드시스템



< K드론시스템 추진 로드맵 >

- ➔ R&D : ('20년) 1개소, 10대 통제, 드론물류 시범사업(우본), 신규배송 발굴 → ('21년) 15대 통제, 일반제작사 참여 → ('22년) 20대 통제, 일반인 참여를 통한 성능 입증
- ➔ 실용화 : ('23년) 국가 차원의 중앙클라우드(FIMS) 구축 후 준도심 실증 → ('24년) 송신기 보급확대, 도심실증 → ('25년) USS를 통한 UTM 서비스 본격 실용화